“바른정당만이 당의 정책연대 파트너일 필요는 없다”

국민의당 호남의원 23명 바른정당 통합 찬반 조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와 국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다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의당의 진로 토론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송기석·김관영 의원 조건부 통합 찬성…권은희 의원 유보

“바른정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안별 정책별 연대는 가능”

“安대표 대신 새 얼굴 내세워 지방선거 치르자” 의견도

국민의당 호남의원 23명 중 20명은 안철수 당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의원 가운데 송기석 의원과 전북의 김관영 의원은 조건부로 통합에 찬성했으며, 권은희 의원은 “입장 표명이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통합 찬반 관련 의사표시를 유보했다. 손금주 의원의 경우 “호남과 5·18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의원들 대부분은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 “다당제 구도에서 법안 통과와 정책 실현 과정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가능하며 당연하다. 그런데, 꼭 바른정당만이 당의 정책연대 파트너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선거연대의 경우 정책연대를 통해 양당의 신뢰관계가 확립되고, 지역별·선거구별 선거 판세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는 것이지 인위적 선거연대를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의원이 주를 이뤘다.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도 “꼭 바른정당이 연대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능하다”는 소수의 견도 있었다.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 등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의원들은 “당과 당원, 소속 의원을 우습게 아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통합 논의 중단 선언 후 인물 중심, 민생 중심, 일하는 제 3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승산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의원들은 리더십을 상실한 안 대표가 아닌 당의 새얼굴을 내세워야 지방선거 승산이 있다는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압도적 반대=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말끝을 흐리거나 어물거리며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며, 대부분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역 의원 8명 가운데 권은희(입장유보)·송기석(조건부 찬성) 의원을 제외한 김경진·김동철·박주선·장병완·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6명은 통합에 반대했다. 전남에선 박준영·박지원·손금주·윤영일·이용주·정인화·주승용·황주홍 등 의원 8명이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북의 경우 국민의당 의원 7명 중 1명(김관영)을 제외한 6명(김광수·김종회·유성엽·이용호·정동영·조배숙)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원들은 당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정체성 등 태생부터 양당이 다르다 (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주선·박지원·이용호·정동영·정인화·장병완·조배숙·주승용·최경환·황주홍)▲호남 민심이 용서치 않는다 (김동철·박지원·이용호·장병완·황주홍) ▲실리도 명분도 없다 (최경환·유성엽·윤영일) ▲통합 대상 정당이 호남차별 정당이자 반개혁세력이다 (천정배) ▲국정농단 책임을 진 세력이다 (이용주·정인화) ▲당내 숙의과정이 없었다(김동철·이용주·박준영) 등을 지목했다.

윤영일 의원은 “무슨 당대당 통합이냐, 한 줌도 안되는 바른정당과 통합은 가당찮다. 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정하려거든 개별 의원들을 우리 당에 영입하라”고 쓴소리했다. 조배숙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는 바른정당과는 통합 논의 자체가 가당치 않다. 한 손에 한국당을, 다른 손에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올려두고 몸값 올리기에 나선 정당과 통합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40석인들, 통합해서 50석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혀를 찼다.

반면 김관영 의원은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중도개혁 세력 확장이 필요하다. 다만, 바른정당으로부터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는 중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난 뒤 통합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송기석 의원은 당내 갈등을 정리한 후 통합 추진을, 권은희 의원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정책연대는 가능…선거연대는 지켜봐야=정책연대와 관련해서는 의원들 다수가 ‘문제될 게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당제 구도의 국회체제에서 정당간 법안 통과, 정책 실현을 위해 당연히 공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 및 재정 관련정책에서는 큰틀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호남의원들은 국민의당이 입법과정 및 정책실현 과정에서 연대를 해야할 정당이 꼭 ‘지금 안대표가 통합을 추진하는 바른정당일 필요는 없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바른정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책과 입법에서 공감대를 이룬다면 사안별로 연대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호 의원의 경우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서 답변이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조그만 정당(바른정당)과 무슨 연대냐, 정책연대도, 선거연대도 의미없다”며 연대 무용론을 강조했다.

연대의 범위를 선거연대까지 확장하면 호남의원들 반응은 좀더 조심스러워진다.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답변이 절반가량, 정책연대 등을 통해 양당이 신뢰를 쌓은 후 지역별 선거 판세를 봐가며 선거연대를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의원들 상당수는 선거 판세와 양당 신뢰관계 확립 등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양 당간 선거연대 논의가 돼야지, 인위적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선거연대가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만 그 대상이 꼭 바른정당일 필요는 없다(유성엽), 지역에 따라 선거연대 필요성과 대상이 다르다(김광수·김종회), 바른정당과 선거연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이용호)는 개별 의견도 있었다.

◇지방선거 선전을 위한 대책은=지방선거는 치러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의원들에게선 대체로 한숨소리가 먼저 나왔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따른 당 내홍을 되도록 빨리 수습한 후 지방선거 체제로 당 전열을 정비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지방선거 선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리더십이 무너진 안 대표 대신 당의 새 얼굴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러야한다 ▲안 대표가 당 통합 중단 선언 후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를 진두지휘해야한다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인물론으로 승부하면 된다 ▲민주당과 개혁경쟁을 해야한다 ▲개혁과 선거제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3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선결과제는 ‘안 대표의 통합 중단 선언’이라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동철 의원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만 이는 민주당이나 여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적폐청산에 힘을 보태는 측면이 강하다. 국민의당이 뚜벅뚜벅 자신의 길과 역할에 충실하다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기회가 올 것이다”는 의견을 내놨다.

호남의원들 다수는 안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전당원투표 등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전당원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예도 없었고, 의결 기구도 아니라는 게 의원들 지적이다. 일부 의원의 경우 “자기 팬들만 데리고 정치하려고 하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쫓아낼 것인가”(유성엽), “합당은 전당대회 통해서 하는 것이다. 정치를 그런식으로 하는 것 아니다”(조배숙)”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중소기업”

文대통령 ‘혁신 전략회의’ 주재…관련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을 지원하는 ‘서포트타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혁신성장에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 추진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국이 혁신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는데 우리가 그에 발맞추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4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돼 적기에 집행되는 게 경제상황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안출발 ✈ 일본,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이제 여행의 시작점은 가깝고 편리한 **무안공항**입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2017. 11. 27(월) ~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10. 29(일) ~ 03. 30(금)] |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선착순 특가상품]
아마가세 펜션(1박)+특급호텔(1박) 499,000원~
[실속] 북 큐 슈 호텔 599,000원~
[품격] 북 큐 슈 료칸 699,000원~
[품격] 야마구치 료칸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오사카 남쪽의 아름다운 해변과 온천으로 유명한 와카야마
2018. 1. 5(금) ~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품 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품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1,198,000원~
[골 프] 시라하마, 와카야마 36홀 899,000원~

무안 ↔ 가고시마
검은 모래찜질과 사쿠라지마 화산을 즐길 수 있는 일본 남쪽의 아름다운 고장!!!
2018. 1. 18(목) ~ 주 3회 출발 / 월요일(3박4일) 목, 토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6:00) → 가고시마(17:20) / 가고시마(18:00) → 무안(19:20)
[특가상품(목요일 출발)] 가고시마(이브스키, 치란, 미야자키) 669,000원~
[품 격] 가고시마, 기리시마, 이브스키 898,000원~
[고품격] 가고시마, 기리시마, 이브스키 1,148,000원~
[골 프] 가고시마 36홀 899,000원~

무안 ↔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출발
화 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 요금은 호텔 준특급 기준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799,000원~ / 3박5일(금) 899,000원~
[노팁 ·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1,049,000원~ / 3박5일(금) 1,149,000원~
[노팁 · 노옵션]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1,049,000원~ / 3박5일(금) 1,14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